산업통상자원부	보도자료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		

2020년 4월 1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13.(월) 16시부터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4. 13(월)	담당부서	신남방정책과 자유무역협정이행과
담당과장	배성준 과장(044-203-5710) 안홍상 과장(044-203-5760)	담 당 자	하정욱 사무관(044-203-5713) 김선애 서기관(044-203-5767)

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코로나19 대응 위한 한-베트남 경제협력방안 논의

- 필수 기업인들의 이동 보장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-
-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교환을 위한 "화상 서명식" 개최 -

□ **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**4월 13일**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국*이자 올해 아세안(ASEAN) 의장국인 **베트남**의 트란 투안 안(Tran Tuan Anh) **산업무역부 장관**과 **화상회의**를 개최하여 **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논의**하였다.

* '19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대상국(692억불)이자 4위 누적투자대상국(356억불)

○ 이번 화상회의는 **양국 정상**이 지난 3일 **필수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**함에 따라 **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**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□ **성 장관**은 **코로나19 사태**가 **단기에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**되는 상황으로, 향후 **철저한 방역**은 물론 **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**도 **병행**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.

○ 특히 양국간 긴밀히 구축된 **공급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수 기업인의 이동을 보장할 필요**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, **한국 기업인들의 베트남 입국**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**산업무역부의 적극적인 지원**을 당부하였다.

○ 또한 향후 한국과 베트남의 기업인 입국 허용 사례를 바탕으로, **아세안내 필수 기업인들의 이동이 체계적**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**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**의 **주도적인 역할**을 요청하였다.

□ 이외 양측은 **소재부품분야 협력을 강화**하기 위한 **태스크(TASK)센터*의 조속한 개소**와 **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수요평가(ENT) 규제** 해소**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*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센터 : 베트남 현지에서 기술지도, 인력양성, 시험인증 지원 등을 통해 한-베 소재부품분야 협력을 지원하는 거점기관

** 경제적수요평가(Economic Needs Test) :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소매점포 개설 시, 자국소매업 보호를 위해 2호점부터 심사 의무화

□ 한편, 양국 장관은 한-베 자유무역협정(FTA)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"**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(EODES) 작업반 설치**"를 **결정**하는 "**화상 서명식**"**을 개최**하였다.

*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(EODES :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)
-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업체가 직접 수입국 세관에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원산지 정보를 관세 당국간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제도

○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조되는 **국제 비대면 경제의 대표적 시범 행정 사례**로서, **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**에서 양국 장관간 화상 서명을 통해 **정부간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**하게 될 것이다.

○ 이번 서명을 계기로 작업반이 가동되어 EODES가 도입되면, 그간 우리 수출기업이 문서로 발급받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던 **원산지 증명서***가 **향후 양국 세관간 전산으로 처리**되게 된다. (19년 기준, 우리기업이 베트남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는 8만5천건)

* 원산지 증명서(Certificate of Origin) :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,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·사육·제조·가공된 것임을 증명

○ 이를 통해, **증명서 위조** 및 통관 지연, 서류 불인정 등 **기업애로가 원천적으로 해결**되고 **신속한 통관절차**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통상과 하정욱 사무관(044-203-5713), 자유무역협정이행과 김선애 서기관(044-203-576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